



통상이슈브리프

2025.02.13

美,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강화

한아름 수석연구원 (02-6000-5850, ariel.han@kita.or.kr)

I 대통령 포고문 주요 내용

- 기존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에 대한 면제·예외를 무효화하고 철강 25% 관세 일괄 부과 및 알루미늄 관세를 25%(기존 10%)로 인상
-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각각 발표(2/10~11)
- **(배경)**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심화
- **(철강)** 관세 면제 및 쿼터·저울할당관세(TRQ) 등 국가별 예외를 무효화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3/12일부터 적용)
-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쿼터·저울할당관세(TRQ) 무효화와 동시에 현행 10%의 관세율을 25%로 인상(3/12일부터 적용)

(표) 기존 232조 국가별 예외조치 운영 현황

면제	구분		쿼터			저울관세할당(TRQ)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일본	영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쿼터량 (t)	철강	263만	419만	18만	330만	125만	50만
		알루미늄	-	-	18만		-	2.2만
	시행일		'18.1월(소급 적용)			'22.1월	'22.4월	'22.6월

- 특정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대상 품목에 추가하며, 세부 품목은 부속서를 통해 발표 예정
- (목적) 232조 조치 대상 품목을 비대상 파생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 (예외) 미국에서 제강(melt and pour)된 철강제품 또는 제련·주조된(smelted and cast) 알루미늄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가공한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다운스트림 제품) 추가 대상품목 중 HS코드 73, 76으로 분류되지 않는 파생제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관세 적용
- (관세 시행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적절한 징수 시스템 구축 이후 상무부 장관의 통지에 따라 효력 발생 예정
- 일반승인예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 등 기존 모든 관세 면제 절차를 폐지
- (일반승인예외) 미국 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양적·질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예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관세를 자동 면제하였으나 이를 폐지
- (그 외 면제절차) '25.2.11. 이후 수입자 신청에 따른 관세 면제 신규 부여 또는 갱신을 중단
 - 기존 부여된 관세 면제는 만료일 또는 제품 수입일자 중 빠른 일자까지 유효

(표) 대통령 포고문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조치 배경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면제·예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재증가('18년 74%→'24년 82%) – '24년 美 철강시장 내 수입산 비중은 232조 조치 전 수준인 30%에 육박 – 특히, 멕시코산 수입이 1,678%, 캐나다산 수입이 564% 증가('20년 대비)
	알루미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량은 최근 4년간 30% 감소 – '24년 미국 내 제련소 가동률은 52%에 불과 – '24년 캐나다산 수입이 18%, 멕시코산 수입이 35% 증가('15~'17 평균 대비)
조치 목표	– '18년 조치가 기반하고 있는 상무부의 232조 조사 보고서는 미국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생산시설 가동률을 최소 8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관세 부과 대상	– '25.3.12. 오전 12시 1분 동부표준시(EST) 이후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어 소비되는 상품	
HTSUS 개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조치 및 시행일에 따라 동 포고문 발표 10일 이내에 HTSUS를 개정해야 하며, 이는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	

자료 : 포고문 기반으로 저자 작성

II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 및 영향

□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

○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

(표)한국의 국별 철강·알루미늄 수출 현황('24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철강					알루미늄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전년비 증감률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전년비 증감률
총계		33,290	100.0	-5.4	총계		4,941	100.0	11.9
1	미국	4,347	13.1	-5.5	1	중국	1,091	22.1	-2.1
2	일본	3,812	11.5	-6.0	2	미국	1,006	20.4	52.2
3	중국	3,313	10.0	-9.4	3	베트남	603	12.2	11.8
4	인도	2,668	8.0	-4.1	4	멕시코	274	5.6	46.9
5	튀르키예	2,515	7.6	0.1	5	일본	269	5.4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철강은 MTI 61, 알루미늄은 MTI 621 기준으로 집계

○ 미국의 국별 철강 수입은 캐나다, 브라질, EU, 멕시코, 한국 순이며, 포고문에 따르면 기존 관세 면제·예외를 받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7%에 달함

○ 베트남, 대만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24년 각각 143.3%, 74.6% 증가(물량 기준)

○ 미국의 국별 알루미늄 수입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UAE, 한국 순이며, 특히 캐나다의 비중이 41.4%에 달함(금액 기준)

(표) 미국의 국별 철강·알루미늄 수입 현황('24년 기준)

(단위 : 천톤, 억달러, %)

철강(수입량 기준)						알루미늄(수입액 기준)				
순위	국가	수입량	비중	전년비 증감률	비고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전년비 증감률
총계		28,858	100.0	2.5	-	총계		274	100.0	0.1
1	캐나다	6,557	22.7	-4.8	면제	1	캐나다	114	41.4	2.3
2	브라질	4,498	15.6	14.1	쿼터	2	중국	29	10.5	11.8
3	EU	4,276	14.8	6.8	TRQ	3	멕시코	18	6.7	-5.8
4	멕시코	3,517	12.2	-15.9	면제	4	UAE	12	4.4	-20.8
5	한국	2,809	9.7	6.5	쿼터	5	한국	9	3.4	49.4
6	베트남	1,363	4.7	143.3	-	6	인도	8	2.8	-9.2
7	일본	1,180	4.1	-0.7	TRQ	7	바레인	7	2.5	7.8
8	대만	1,011	3.5	74.6	-	8	콜롬비아	7	2.4	5.0

자료 : 미국철강협회(AISI), 한국무역협회

주 : 알루미늄은 HS 76 기준으로 집계

- (철강) 미국 국내업체나 기존 관세 부과국 기업 대비 경쟁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 최근 생산능력 증설로 미국 내 여유 생산능력이 확대된 만큼,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 비중이 감소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미국에서는 약 1,200만 톤의 평판 압연강판 연간 생산능력이 추가로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짐¹⁾
 - 관세 면제·예외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최근 수입이 급증한 베트남, 대만산 철강은 기존 관세 면제·예외 적용국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음
- (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를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금번 면제절차 종료로 인해 관세 부담 가중 예상
 - 알루미늄 업계는 관세 면제 또는 환급으로 관세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이 많아 면제절차 종료로 인해 사실상 관세가 25%p 인상되는 효과
 - 대미 알루미늄 수출의 62.8%를 차지하는 알루미늄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4.3%를 차지하는 알루미늄박은 미국 내 생산량이 저조해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III 전망 및 시사점

- 철강·알루미늄 업계뿐 아니라 대미 투자 기업도 원재료나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 증가
 - 수입산 철강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관세조치 전부터 가격을 인상해온 미국 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인상 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²⁾
 - ‘18년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보호받는 산업의 미국 내 생산량은 ‘18~’21년 28억 달러 상당 증가했으나, 다운스트림 산업은 비용 상승으로 동기간 생산량이 34억 달러 상당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³⁾
-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관세조치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비용·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철강·알루미늄을 국내에서 가공해 중간재나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후 부속서로 발표될 파생제품 추가 목록을 주시할 필요
 -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외에도 조치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관세 납부액 산정을 위해 제품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데 따른 애로 발생 우려

1) Bob Tita(2025.2.4.), "Tariffs Give U.S. Steelmakers a Green Light to Lift Prices," The Wall Street Journal.

2) Ibid.

3) 이유진, 한아름(2024.9.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통상리포트 Vol.10, 한국무역협회.

-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선회에 대한 우려로 관세장벽이 확산될 가능성
- 미국의 관세조치로 자국 내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유입이 확대될 우려로 확대되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우리 기업이 중국과 동반 제소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24년 신규 개시된 튀르키예(주석도금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컬러강판), 말레이시아(주석도금강판), 베트남(아연도금강판) 등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조사대상국에 포함됨
- EU의 경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26.6월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관세체계를 논의 중으로, 향후 쿼터량 축소, 수입규제 강화 등에 나설 수 있음